

청년 나홀로 가구 10명 중 8명 셋방살이

월세 63%로 나이 적을수록 비중 높아 12평 이하 원룸 등 다세대 주택 거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지원책 시급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88만 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은 주로 40㎡ 이하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월세와 전세 등 임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1699만2000가구 중 539만8000가구(27.2%)로 집계됐다.

이중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 1인 가구는 187만 8000가구(전체 가구의 11.3%)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과 2016년의 청년층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20~24세는 27만2000가구에서 39만2000가구로 약 43.9%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25~29세는 49만1000가구에서 53만8000가구로 9.6% 늘었다.

30~34세는 42만7000가구에서 52만1000가구로 21.7% 늘었고, 35~39세는 36만4000가구에서 43만1000가구로 17.9% 증가했다.

청년층 1인 가구는 40㎡ 이하의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9세 1인 가구 중 69%가 40㎡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20대 1인 가구는 60% 이상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원룸 등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고시원을 비롯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주거에서 사는 1인 가구도 10~15%를 차지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 가구 비중이 84%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 중 20~29세 청년의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매달 20만~40만원의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주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지난 8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청년층 1인 가구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달 주거약자 대상에 청년층 1인 가구를 포함해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부담 가능하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거복지 확대 측면에서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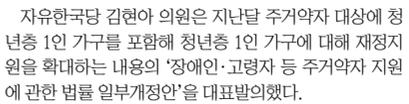
이어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 주거비 보조 기준 등을 개선해 주거비 부담이 취약, 결혼, 출산·양육, 내집마련 등 미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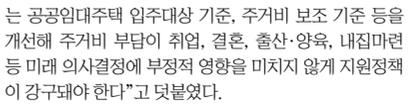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 대부분은 40㎡ 이하 단독·다세대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앞 게시판에 원룸·하숙집 광고지가 빼곡히 붙은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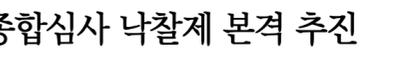
청년층 1인 가구 주거 현황



주거 점유 형태



연령별 월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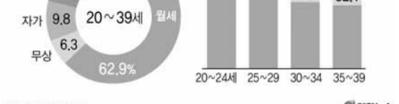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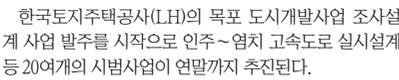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청년층(20~39세) 1인 가구 기준



주거 점유 형태



연령별 월세 비중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광주·전남 주택사업자 체감경기 '싸늘'

부동산 규제 정책 여파

가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10월 광주·전남지역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최근 내놓은 '2017년 10월 전국 주택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에 따르면 광주의 HBSI 전망치는 75.0으로 전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방 평균 전망치 76.4보다 낮은 수치다.

전남도 79.4로 전월 82.1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이렇듯 주택사업 경기가 하락세를 기록한데는 고강도 8·2대책 여파가 광주·전남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며 주택사업자들의 체감경기가 싸늘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10월은 가을 주택사업에 대한 기대로 전월 대비 HBSI가 상승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인다.

주산연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10월에는 고강도 8·2 대책 이후 위축됐던 주택공급시장 여건이 일부 개선됐으나, 여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의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기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전히 하강곡면이 지속하고 있어 주택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후속 대책이 발표되면 하락 곡면의 공급 시장 여건이 지속할 수 있어 주택사업자와 소비자는 정부의 정책을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택 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HBSI 전망치는 71.2로 지난달(58.9)보다 12.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월(93.3)과 비교하면 23.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온비드 공매 광주·전남 관심 물건



◆ 광주시 서구 풍암동 소재 근린생활 시설
-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14
- 관리번호: 2017-03735-003
- 면적: 집종지 1,500.2㎡, 건물 6,759.99㎡
- 감정가격: 금 5,820,598,600원
- 최저입찰가격: 금 5,820,599,000원
- 입찰기간: 2017.10.23 ~ 2017.10.25
- 내용: 본 건물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소재 '풍암동행정복지센터' 북쪽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주택 및 상가지대임.



◆ 광주시 남구 송하동 소재 대지
-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86
- 관리번호: 2017-10687-001
- 면적: 대 752㎡
- 감정가격: 금 424,880,000원
- 최저입찰가격: 금 424,880,000원
- 입찰기간: 2017.10.23 ~ 2017.10.25
- 내용: 본 건물은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효천중학교' 북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정비된 주택지대임.

* 인터넷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서 가능 (현장 입찰은 없음)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가격보다 기술력' 건설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본격 추진

목포 도시개발사업 등 시범사업

건설엔지니어링 기술 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 기준안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연내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내 건설 용역 분야 입·낙찰 제도는 저가 입찰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기술 변별력이 부족해 부실 용역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히 국제기준과 달리 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부터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 낙찰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인주~영지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개의 시범사업이 연말까지 추진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해 관련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수준 문화를 바꾸고,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등 건설하고 합리적인 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집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기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환,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자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